풍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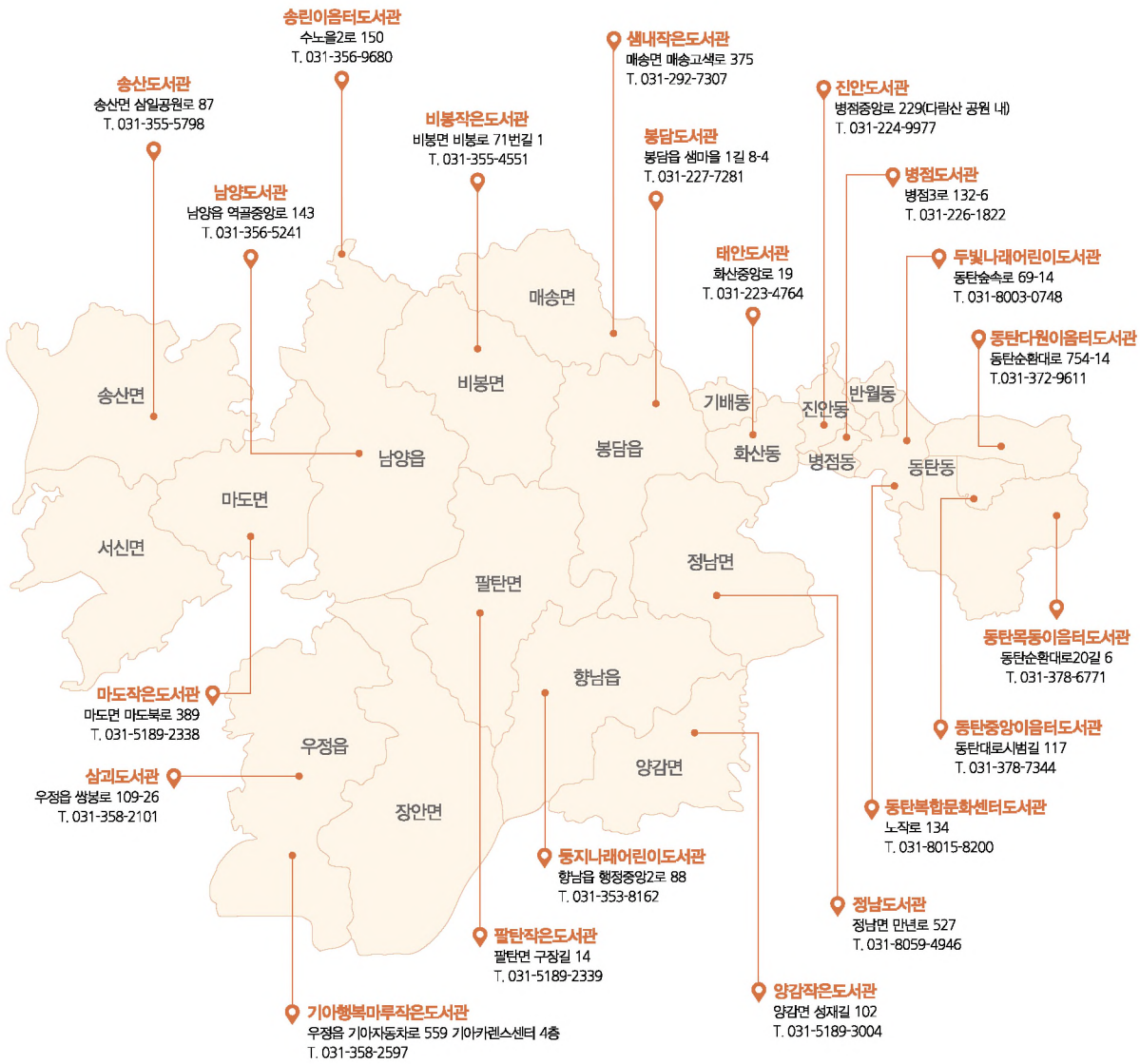
화성시립도서관 정보소식지

Volume 43
•
Autumn, 2020



HWASEONG CITY CULTURAL FOUNDATION
화성시문화재단

화성시립도서관 지도



화성시립도서관

태안도서관 · 삼괴도서관 · 병점도서관 · 두빛나래어린이도서관 · 봉담도서관 · 둥지나래어린이도서관 · 동탄복합문화센터도서관 · 송산도서관 · 정남도서관 · 진안도서관 · 동탄중앙이음터도서관 · 동탄다원이음터도서관 · 송린이음터도서관 · 동탄목동이음터도서관 · 남양도서관

편집위원 홍미정, 김보라, 최예슬, 이재훈, 이혜인, 홍의헌, 이호성, 김민지, 이정인, 김준형, 유정미 **발 행 일** 2020년 09월 11일 **발 행 처** 화성시문화재단
편 집 화성시립도서관 **발 행 인** 화성시문화재단 대표이사 **홈페이지** http://www.hscitylib.or.kr **SNS**(Instagram, Facebook) hwaseonglib

Contents

Volume 43. Autumn 2020
화성시립도서관 정보소식지 풍경

PART 1 도서관의 속도
코로나19지만 괜찮아! 언택트 도서관이 있으니! 4
library on Mars | 도서관이 역사를 기억하는 방식 6

PART 2 도서관의 온도
코로나19로 바뀐 일상,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8
WHO? 사서 탐구생활 '도서관 사서의 하루' 10
도서관과 함께 슬기로ON 독서생활 12

PART 3 도서관의 시선
사서의 특별한 시선 | 예술
인상주의 화가 그리고 키다리 아저씨 14
사서칼럼 | 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 속 어른 동화 엿보기 16
사서의 인터뷰 | 우리의 수돗물은 안전한가? 18
사서의 북컬렉션 20

PART 4 도서관의 뉴스
화성시립도서관 〈1인 1책 쓰기〉 22
화성시립도서관 〈시민감성 아카이브 프로젝트〉 23
함께 만들어가는 도서관 '풍경' 24

PART 5 도서관 이용안내
알면 편한 도서관 서비스 26
도서관 이용안내 27

언택트 통합 플랫폼 READ 소개

"코로나19지만 괜찮아! 언택트 도서관이 있으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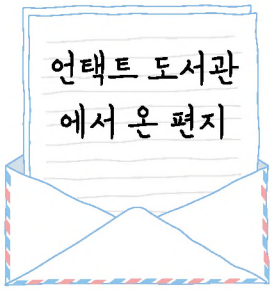


코로나, 처음 너를 만나서 걱정이 많았어. 두려움에 혼자 집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어. 매일 만나던 친구들도 못 보고 가끔 슈퍼에 갈 때도 마스크를 챙겨야 했지. 처음에는 동네에 모자를 눌러쓰고 가는 연예인 같아서 신이 났는데, 너 때문에 바뀐 내 일상이 너무 속상했어.

난 집 근처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고, 사서 선생님한테 인사도 했지(왜냐면, 나를 아주 반겨주거든!). 주말에는 영화랑 공연도 볼 수 있어서 도서관을 자주 가곤 했어. 네가 찾아온 이후에는 도서관에 못가서 얼마나 심심했는지 몰라. 어느 날 우연히 도서관 홈페이지를 살펴보다가 언택트 도서관 통합 플랫폼 안내를 보게 되었지 뭐야.

"이게 뭐지?"라는 호기심으로 클릭을 해봤어. 네가 서운하겠지만 〈언택트 도서관〉은 뭔가 특별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 얼마나 멋진 플랫폼인지 이따가 소개해줄게. 나는 작게 소리를 질렀지. "야호, 드디어 도서관에 간다!" 코로나19 네가 나에게 언택트 도서관을 만나게 해 준 거야.
난 언택트 도서관에서 책을 고르고, 글을 쓰며, 슬기롭게 독서생활을 다시 할 수 있을 거 같아. 너로 인해 집에서 편하게 우리 동네 도서관을 만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변화야.

클릭 하나로 우리 집이 도서관이 되고, 클릭하는 순간 와르르 쏟아지는 선물을 받아. 코로나 19지만 난 괜찮아. 언택트 도서관이 세상과 연결해 주거든. 책과 함께 일상을 지켜주는 도서관에 정말 감사해.



그럼 이제부터 '언택트 도서관에서 온 편지'를 소개하려고 해. 잘 읽어주길 바라.

코로나19와 긴 장마 끝에 만나게 되어 정말 기뻐요. "저는 화성시 언택트 도서관입니다."
저는 화성시 도서관의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 사업을 운영하는 언택트 플랫폼이에요. 이 플랫폼의 좋은 점은 회원가입 절차 없이 화성시민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저는 민트색 옷을 입고 있어서 참 산뜻해요. 참, READ는 제 별명인데요. 함께 읽다(REad), 기록하다(Archive), 토론하다(Debate)의 약자랍니다. 좀 어렵지만 똑똑해 보여서 저는 참 마음에 들어요. 화성시민이 저를 통해 책을 매개로 함께 읽고, 쓰고, 토론하는 독서공동체를 이루면 좋겠어요. 저도 많이 노력할게요. 도서관이 준비한 비대면 사업을 보기 좋게 전시하고, 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편리하게 원하는 정보를 얻어갈 수 있도록 튼튼한 다리 역할도 해볼게요. 저를 많이 이용하고 친구나 지인한테 소개도 많이 해주세요. 왜냐하면 저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좋아하거든요.
저를 보고 싶다면 www.ehslib.or.kr 혹은 QR코드로 언제든 놀러오세요.

독서 좋아하세요?
〈함께 읽다〉에서는 화성시 영 · 유아 대상으로 책꾸러미를 택배로 배달해주는 '북스타트' 사업과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다시 책 읽기를 위해 택배서비스 해주는 '리스타트'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또 화성시민이 릴레이로 책을 추천하는 독서캠페인 '북버킷 챌린지'도 운영하고 있답니다. 여러분도 내 인생의 책을 한번 추천해보세요.





글 쓰는 것 어렵다고 생각하시죠?
〈기록하다〉와 함께 해 보세요. '1인 1책 쓰기'로 우리 시 지역 작가와 연결해서 1대 1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내가 쓴 특별한 책 한 권 요즘 대세잖아요.

화성시 도서관에 내 작품이 전시된다면? 하고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카이브〉를 클릭하면 가능해집니다. 코로나 19 주제로 시민의 감정을 글과 그림으로 수집하고 있어요. 시민들과 지역 대학생들의 참여로 함께 벽화와 사전을 완성하는 프로젝트에요.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으면 지금의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답답한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토론하다〉를 클릭해보세요. 9월에는 책을 통해 소통하는 '랜선 북콘서트'에 참여해 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 〈홈북〉도 클릭해보세요. '슬기로On 독서생활'에 참여해서 실시간 온라인 스트리밍 강좌도 만나고, 책과 관련된 다양한 키트를 집에서 만들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외에도 고민을 사연으로 신청하면 사서들이 직접 책 처방을 해주는 '북 테라피', '도서관 팟캐스트', 월별 주제가 있는 '북큐레이션'도 만날 수 있어요.





언택트 도서관을 통해 책 읽기와 쓰기, 사람과의 소통으로 지금의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 보아요.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만나면서 다시 행복한 일상을 찾을 수 있을 거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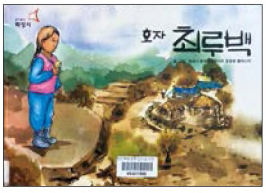
글 | 한영숙 (도서관독서문화진흥팀 사서)

도서관이 역사를 기억하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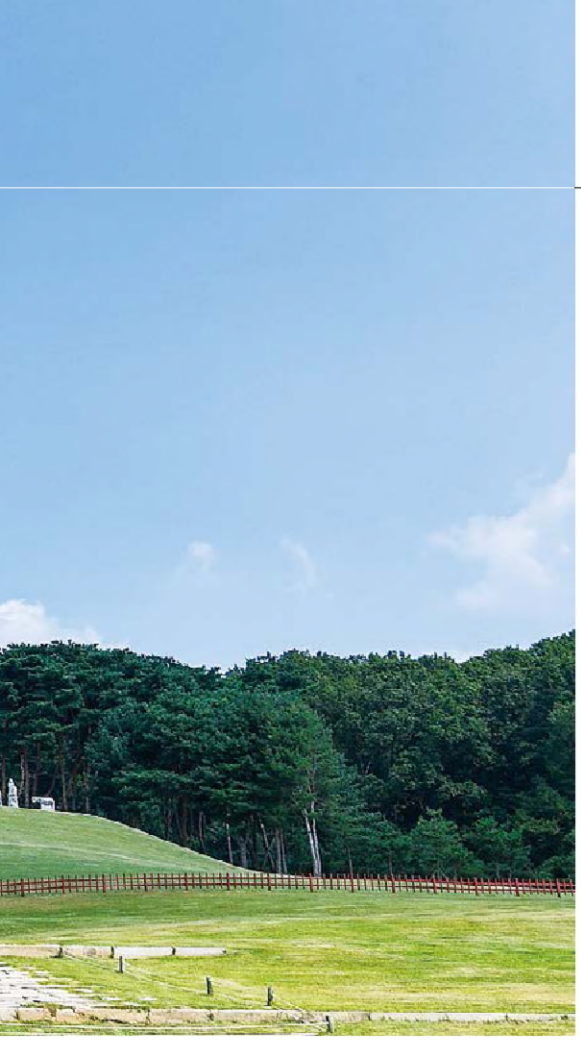
삼강행실도에 실린 효자 최루백의 이야기



효자 최루백 책 표지

화성시에도 사람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덕목을 최우선 가치로 삼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랫동안 전해져오고 있다. 고려시대 살았던 최루백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다. 최루백의 유명한 사연은 다음과 같다. 사냥을 좋아하던 최루백의 아버지 최상저가 사냥을 나갔다가 호랑이에게 습격을 당해 잡아먹히고 말았다. 그 소식을 들은 아들 최루백은 만류하는 어머니를 뒤로하고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길을 나섰다. 호랑이를 발견한 최루백은 "네가 나의 부친을 잡아먹었으니 나도 마땅히 너를 잡아먹겠다"며 호랑이를 죽여 아버지의 시신을 수습하고, 홍법산 서쪽에 무덤을 만들어 삼년상을 지냈다. 그의 이야기는 세종시대에 만들어진 삼강행실도(1434년)에도 실리는 유명한 효자 이야기가 된다.

최루백의 이야기를 들은 정조는 그 이야기를 담아 오륜행실도(1797년)에 담게 했다. 인간이 짐승과 구별되는 것은 오륜이 있기 때문이라는 믿음이 일반적인 시대였다. 오륜이란 부모와 자식, 임금과 신하, 남편과 아내, 어른과 어린이, 친구 사이 등 기본적인 인간관계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다섯 가지의 도덕을 말한다. 최루백의 이야기가 정조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그 또한 '효'라는 덕목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임금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융건릉의 모습(사진 위키백과)



태안도서관 전경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한
'10월에 만나는 정조' 탐방 프로그램



태안도서관
정조시대의 학자들 전시 안내문

정조는 어떤 인물인가. 어린 시절 비극적인 아버지의 죽음을 겪은 사람이다. 정조는 왕위에 오른 후 사도세자를 국왕의 아버지로 복권시키고자 노력했다. 아버지를 장헌으로 추대하고, 제대로 묘역도 조성되어 있지 않았던 사도세자의 묘를 이장했다. 당시 최고의 명당 중 한 곳으로 알려진 지금의 융릉 자리가 그곳이다. 천장 이후 정조는 지극한 효심으로 매년 능행을 통해 아버지를 기렸다. 현재는 정조 또한 융릉의 서쪽에 안장되어 죽어서도 부모를 살피겠다는 그의 뜻을 전하고 있다.

정조의 효심이 깃든 융건릉과 용주사에 인접한 태안도서관은 특화 주제를 '정조'로 정했다. 정조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도서 전시와 강연, 문화유산해설사와 함께하는 탐방 프로그램 등 다양한 역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우리 지역 속 역사를 통해 효라는 가치를 되새겨 보고, 역사 속 인물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자연스럽게 사회와 사람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제공한다.

화성시에는 다양한 재능을 가진 이들이 모여 구성한 동아리가 많다. 그 중 몇몇 동아리가 모여 지역의 역사를 새로운 기록으로 남기려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효자 최루백〉을 비롯한 화성 지역사를 담은 여러 권의 동화책이 탄생했다. 지역 내에서 출간되는 이런 책들은 도서관에 하나 둘 모인다. 그리고 도서관을 찾는 지역의 아이들에게 옛날 사람들이 살았던 시절을 상상하게 해주거나 나아가 또 다른 이야기를 발굴해내고 엮어가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한다.

도서관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책이라는 사물이 오가는 곳이다. 하지만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도서관은 살아 숨쉬는 유기적인 공간임을 깨닫게 된다. 책을 읽고, 책 속 구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다른 이들과 함께 책 속에 담긴 역사와 지혜를 공유한다. 그런 시간들이 모이고 그렇게 또 하나의 역사가 도서관을 통해 생겨나고 있다.

글 | 김보라 (도서관기획홍보팀 사서)

코로나19로 바뀐 일상,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평범한 일상은 언제쯤….

지난 7월 24일부터 8월 17일, 길었던 임시 휴관을 마치고 잠깐 개관했다. 아직 코로나의 위협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동안 도서관을 찾지 못했던 이용자들이 도서관을 찾았다. 자료실에서 직접 책을 보고 골라 대출 하는, 자극히 평범했던 일상을 되찾은 시민들의 모습을 보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도서관이 문을 열지 않았던 시간 동안 시민들은 어떤 일상을 보냈을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시민들이 도서관에 바라는 점들은 무엇이 있을까? 라는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도서관은 지난 8월 초, 약 일주일에 걸쳐 〈코로나19로 바뀐 일상,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라는 제목으로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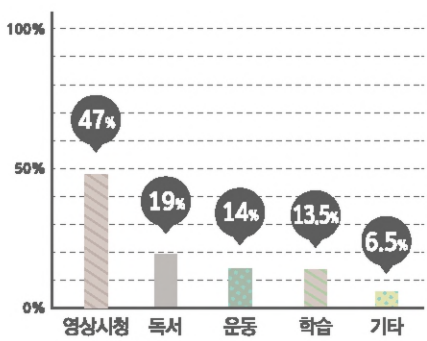


영상 시청을 주로, 그래도 놓지 않은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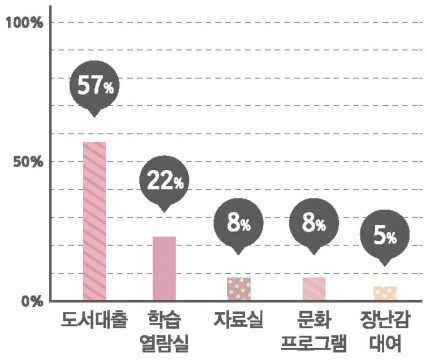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이용자들은 주로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영상시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독서를 꼽은 이용자들도 많았는데, 책을 빌리지 못하여 이번 기회에 전자책을 읽기 시작했다는 답변이 많았다. 화성시 도서관은 구독형 전자책과 소장형 전자책 그리고 오디오북 등의 전자자료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영상 시청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그래도 시민들은 독서에 대한 열정으로 책을 놓지 않는 그런 시간을 보냈다.

코로나19로 도서관이 문을 닫았을 때, 어떤 활동을 가장 많이 하셨나요?



도서관 서비스 중 이용하지 못해 가장 불편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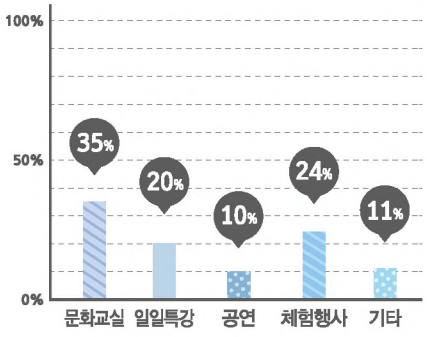


도서관에서 책을 고른다는 것

휴관 동안 이용자들이 가장 불편했다고 꼽은 것은 바로 도서 대출이었다. 역시 도서관을 찾는 가장 큰 이유는 책을 빌리는 것! 휴관동안 예약 대출 서비스인 북테이크아웃을 운영해왔지만 아무래도 제한적 서비스였기에 이용자들이 느끼기엔 아쉬웠던 점이 많았던 것 같다. 마음 편하게 자료실에서 원하는 책을 직접 보고 고르는 평범한 일상이 빨리 오길 희망해본다.

학습열람실을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함을 토로한 이용자들도 있었다. 책을 빌리러 오는 이용자만큼이나 학습을 위해 도서관 열람실을 찾는 이용자들도 많은 것이다.

도서관이 정상 운영되면 가장 참여하고 싶은 문화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도서관 배움의 중심, 문화교실

문화교실은 도서관의 대표적인 문화 · 교육 프로그램으로 일상에서 배움이 필요한 시민 모두에게 무료로 제공되어 왔다. 하루빨리 다시 시작되길 바라는 이용자들의 마음을 담아 도서관에서는 현재 비대면 온라인 프로그램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미흡할지 모르지만 도서관의 프로그램을 기다리는 이용자들의 기대에 조금이나마 부응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북테이크아웃, 그리고 내일의 도서관

임시휴관이 길어지면서 책에 대한 이용자들의 갈증을 덜어내기 위해 도서관은 북테이크아웃서비스를 운영했다. 미리 인터넷을 통해 도서를 신청하고 지정된 시간에 책을 찾아가는 이 서비스가 이용자 모두의 기대를 만족시킬 수는 없었지만, 설문에 응한 대다수의 이용자는 휴관 기간 중 도움이 되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한마디씩 전해주었다. "도서관의 소중함을 많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상화를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로그램도 빨리 재개되길 기다리겠습니다." 등 이용자의 진심이 담긴 한마디 한마디는 도서관에 큰 힘이 되었다.

언제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용자들이 언제라도 찾으면 맞이할 수 있는 일상의 도서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서관은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글 | 이호성 (삼괴도서관 사서)

Who? 사서 탐구생활

'도서관 사서의 하루'

코로나19로 인해 도서관 문이 닫혔다!
근데, 북테이크아웃으로 도서 대출반납 서비스만 한다고?
그럼 그동안 도서관 사서들은 무슨 일을 하는 것일까?
장기 휴관 동안 숨겨진 '도서관 사서의 하루'를 소개합니다.



장서: 도서관의 꽃

도서관법을 보면, 도서관은 도서관 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조사·연구·학습·교양·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이처럼, 휴관 중에도 장서 담당 사서는 다양한 이용자를 위한 도서, 전자책, 잡지 등의 도서관 자료들을 구입하는 역할을 하였다. 사서가 구입하는 신간도서, 희망도서 등의 자료가 바로 도서관을 이루는 꽃인 것이다. 하지만 꽃이 영원히 피어 있을 수는 없듯이, 사서들은 장서점검 작업을 통하여 가치가 상실되거나 파손된 도서를 정리하고 폐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곧 다가올 도서관 정상 개관을 위한 꽃단장인 셈이다.



신간 도서 구입 및 도서 배가 작업



이용가치상실 및 파손도서 정리작업

자료실: 이용자와 책과의 만남

어린이자료실, 종합자료실은 이용자와 책이 직접 만나는 공간이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인 자료실 운영이 어려워져 도서관은 예약 대출서비스인 〈북테이크아웃서비스〉를 운영했다. 각 자료실 담당 사서는 랜선으로 이용자가 신청한 도서목록을 정리하고 책을 소독 · 대출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다. 다시 오픈할 자료실 이용자를 위해 오브제를 활용한 도서 전시도 준비했다. 또 서가 구입 · 정리 및 비품들의 소독 작업을 통해 쾌적한 자료실 환경정비에 힘썼다.

프로그램: 이용자의 독서생활을 꽃피우다

문화교실, 공연, 독서교실, 작가 초청 행사 등 이용자를 위한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이 중단되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였지만, 프로그램 담당 사서는 새로운 방식의 비대면 독서문화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계속 고민하였다. 학교 수업이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된 것처럼, 도서관의 독서문화프로그램도 변화가 필요했다. 하반기 도서관 프로그램을 위해 사서들은 집과 온라인에서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도서 꾸러미, 놀이키트와 독후활동 영상, 온라인 강좌 등의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 · 제작하면서 대외적인 홍보 준비를 시작하였다.



북테이크아웃 신청도서 목록작업

코로나로 인해 '언택트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기존의 도서관은 사서도 이용자도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도서관의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용자의 슬기로운 도서관 생활을 위해, 화성시립도서관의 사서들은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서가 구입 및 자료실 환경정비 작업

"이용자 희망도서와 신간도서를 꾸준히 구입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화성시 초·중·고 학생들의 원활한 학습을 지원하고자 교과연계 및 진로 등에 필요한 다양한 도서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 장서 담당 사서의 코멘트

"원하시는 도서를 북테이크아웃으로 안전하게 대출하여 이용해주세요! 전자책이나 오디오북도 이용 가능합니다!"

 # 자료실 담당 사서의 코멘트

"언택트 시대에 발맞춰, 화성시 도서관의 독서문화프로그램이 비대면과 온라인으로 새롭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독서문화 콘텐츠를 준비하여 여러분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언택트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해보세요!"

 # 프로그램 담당 사서의 코멘트



비대면 독서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준비 작업



월별 북큐레이션 작업

글 | 홍의현(봉담도서관 사서)

도서관과 함께

슬기로ON 독서생활+





도서관에서 지원하는 집콕 생활, 어디까지 진화할 수 있을까?

<슬기로ON 독서생활> 기존 도서관 회원이 아니라도 OK!

화성시민 누구나 다양한 독후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홈키트와 온라인 강좌, 그 밖의 행사를 제공하여
불가피하게 집콕 생활을 하는 이용자들을 찾아가고 있다.



두빛나래어린이도서관 홍보문



두빛나래어린이도서관 독후활동 키트

두빛나래어린이도서관에서는 8월부터 매월 추천 테마 도서와 관련된 홈키트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해당 행사는 12월까지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으로 관심있는 테마가 있다면 주저말고 신청해보자.



송린이음터도서관 홍보문



송린이음터도서관 온라인 강의 장면

송린이음터도서관에서는 지난 8월, 코로나19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구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온라인 화상강의 줌(Zoom)을 통해 '내가 지구를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책을 읽고 재활용 팝업 북을 만드는 수업을 진행했다. 도서관이 아닌 집에서 온라인을 통해 강사 선생님과 소통하는 만들기 활동은 색다른 경험이었을 것이다.



봉담도서관 슬기로ON 독서생활



봉담도서관 유아 키트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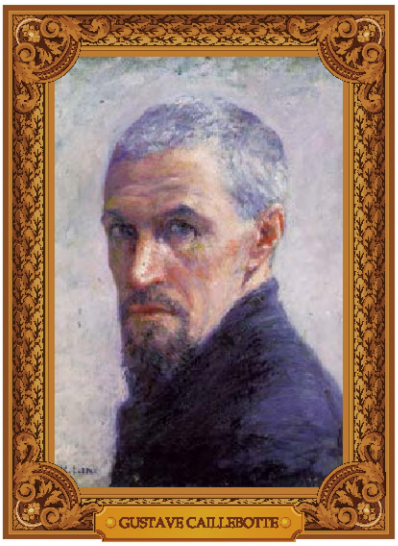
또 봉담도서관은 9월까지 '집에ON 북마블 스탬프 미션'을 통해 유아·어린이·성인 대상으로 키트와 글쓰기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진안도서관의 '과학교실', 둥지나래어린이도서관의 '부모자녀 마음 테라피' 등 도서관별로 다양한 독후활동을 제공할 예정이므로 올해가 끝날 때까지 도서관 비대면 프로그램들을 예의주시하길 바란다.

글 | 이혜인(두빛나래어린이도서관 사서)

특별한 사서의 시선 - <예술 편>

인상주의 화가 그리고 키다리 아저씨



구스타브 카유보트
(Gustave Caillebotte, 1848-1894)

사람들은 흔히 미술사 속 유명 예술가를 떠올리면 가난하고 배고픈 예술가를 떠올린다. 그러나 화가인 동시에 인상주의 화가들의 든든한 후원자였던 카유보트는 예외였다. 카유보트는 군수 사업으로 꽤 성공한 사업가 집안 출신으로, 동시대의 다른 화가들과는 달리 작품 활동을 하면서 돈 걱정이라곤 없었다.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덕분에 다른 화가들에 비해 경제적으로 여유로워 모네, 르누아르, 드가 등 그 시대의 다른 인상주의 화가들의 중요한 후원자가 되어주었다. 동료 인상파 화가들의 작품을 사주거나 전시회를 열어 주기도 하고, 임대료를 내지 못해 작업실에서 쫓겨나게 된 동료들을 대신해 임대료를 내주기도 했다. 카유보트의 든든한 후원이 없었다면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인상주의 화가들 중 누군가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화가가 되어 있거나 어떤 작품은 탄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런 경제적인 능력은 그가 가진 화가로서의 빛을 조금 퇴색케 하기도 하였다. 르누아르는 만일 카유보트가 인상주의 화가들의 후원자가 아니었다면 그의 그림이 좀 더 주목을 받고 화가로서 대접을 받았을 거라고 말했다. 이것은 당시 인상주의 화가들 사이에서 카유보트의 위치와 실력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카유보트는 1872년 아르장퇴유 요트 경기장에서 만난 모네의 격려로 미술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그 당시 카유보트는 집안의 반대로 미술을 포기한 상태였는데 모네와 다른 화가 동료들의 응원에 힘입어 1876년 인상주의 그룹의 전시회에 「대패질을 하는 사람들 (Les raboteurs de parquet, 1875)」을 출품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그림은 당시 심사위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했다. 다른 인상주의 화가들이 시시각각 변화하는 자연의 빛과 색채 위주로 그림을 그린 것과는 달리 그는 굉장히 사실적이고 적나라하게 그림을 그렸기 때문이다.

19세기의 프랑스 파리는 오스망 남작에 의해 지금의 계획된 도시의 모습으로 변화하는 시기였다. 카유보트는 이 시기 파리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잘 표현해낸 화가로 알려져 있다. 근대 도시로 변화해가는 일상적인 파리의 모습과 여유 넘치는 파리인들의 모습은 카유보트 그림의 단골 소재였다. 「발코니에서 본 알레비 거리 (Rue Halévy, vue d'un sixième étage, 1878)」, 「눈오는 오스망대로 (Boulevard Haussmann, effet de neige,



눈오는 오스망대로
(Boulevard Haussmann, effet de neige, 1881)



대패질을 하는 사람들
(Les raboteurs de parquet, 1875)



발코니에서 본 알레비 거리
(Rue Halévy, vue d'un sixième étage, 1878)

1881)」 두 작품을 보면 사실적인 파리의 풍경들이 고스란히 잘 담겨져 있어 계획된 도시로 변화한 파리의 일상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그의 작품의 특징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카유보트의 대표작은 「비 오는 날; 파리의 거리 (Rue de Paris, temps de pluie, 1877)」이다. 꼭 한 컷의 사진과도 같은 이 작품은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파리의 모습을 매우 정교하고 사실적으로 그려냈다. 그림 왼쪽 하단의 보도블럭은 오물로 가득했던 이전의 모습에서 계획적으로 잘 정비된 파리 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비 오는 날 빗물이 보도블럭 사이사이에 채워져 있는 모습은 매우 사실적이어서 실제로 비 오는 날 파리 거리의 풍경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카유보트 본인은 생전 후원자라는 강한 이미지 탓에 정작 화가로서는 주목 받지 못했다. 사후 70년이 되어서야 인상주의 화가로서 재평가 받았다. 1894년 46세의 나이에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그는 소장하고 있던 인상주의 화가들의 작품 68점을 루브르 박물관에 기증하길 원했지만, 살아있는 화가의 작품은 받지 않는다는 박물관의 규정 때문에 기증할 수 없었다. 이후 인상주의 화가의 작품들은 오르세 미술관에 수집되어 현재까지 전시되고 있다. 카유보트의 후원 덕분에 세상에 알려진 인상주의 화가들의 작품들은 '예술'을 특화 주제로 삼고 있는 동탄복합문화센터도서관에서 만나볼 수 있다.

글 | 최예슬(동탄복합문화센터도서관 사서)





비오는 날; 파리의 거리
(Rue de Paris, temps de pluie, 1877)

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 속

어른 동화 엿보기



"그러니 잊지 마. 잊지 말고 이겨내.
이겨내지 못하면, 너는 영혼이 자라지 않는 어린애일 뿐이야"
– 악몽을 먹고 자란 소년(고문영 동화) 中 –

최근 종영한 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 특유의 내용 구성과 연출로 '최고의 힐링 드라마'라는 호평을 받으며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인기를 끌었다.

이 드라마는 동화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다. 매 회마다 우리에게 친숙한 동화를 주제로 이야기를 펼쳐나간다. 빨간 구두, 미녀와 야수 등의 고전, 그리고 동화작가인 주인공 고문영(서예지)이 직접 쓴 그림책들까지. 시청자들은 소개되는 그림책 이야기를 통해 내면의 동심을 끌어내고, 주인공들의 어린 시절을 이해하며 공감할 수 있게 된다. 고문영의 그림책은 드라마 속의 인물들에게 치유의 소재로 쓰이기도 한다.

특히 문강태(김수현)가 고문영이 쓴 '좀비아이'를 읽고 엄마의 사랑이 고팠던 어릴 적을 떠올리며 오열하는 장면은 큰 감동을 자아냈다.

극중에서 소개된 고문영의 그림책들은 기존에 있던 책이 아니라 소품으로 제작한 책이었는데, 드라마의 인기로 실제 출판까지 하게 되었다고 한다. 드라마 속 인물들이 감동 받았던 고문영의 책을 읽으며 마음 속 쿵! 하는 울림을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 (몇 책은 아이들이 보기엔 잔혹한 내용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사이코지만 괜찮아'에서 소개된 고문영의 그림책





그림책은 간결한 메시지와 꽉 찬 그림으로 어른들에게도 충분한 감동을 선사한다. 어린이들만 읽는 책이라는 고정관념은 금물! 함께 읽으면 좋을 그림책들을 소개한다.

메리 / 안녕달 / 사계절

안녕달의 그림책들은 귀여운 그림체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내용들이 많다. 할머니 댁에서 키우는 강아지 '메리'. 아무에게나 꼬리를 흔드는 메리가 새끼를 낳고, 입양을 보내고, 할머니와 생활하는 모습을 정겹게 그려낸 책이다. 손으로 직접 쓴 듯한 사투리 대사는 시골 할머니들의 친근함을 느낄 수 있게 도와준다.



바다와 하늘이 만나다 / 테리 펜, 에릭 펜 / 북극곰

"배 타기 좋은 날이구나." 소년 '호'는 어릴 적 할아버지가 말한 '바다와 하늘이 만나는 곳'에 배를 타고 가는 상상을 늘 해왔다. 상상만 해도 평화로워지는 이 장면을 펜 형제는 몽환적인 그림과 부드러운 색감으로 표현했다. 꽉 찬 일러스트를 보고 있으면 숨겨진 감성이 깨어나는 것 같다.



내가 보여? / 박지희 / 웅진주니어

여기, 학교에서 투명인간으로 살고 있는 아이가 있다. 주변 친구들이 신경쓰지 않던 이 아이가 손을 뻗기로 결심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 아이를 학교에 처음 보내는 부모들의 마음을 위로하기도 하고, 성인들 사이의 인간 관계에 대해서도 돌아볼 수 있게 하는 책이다.



삶 / 신시아 라일런트 / 북극곰

사람의 삶은 자연의 축소판과도 같다. 이 책은 동물들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아 본다. 삶은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가끔은 길을 잃기도 하지만 이겨내고 자라난다는 것. 함축적인 메시지임에도 여러 생각을 하게 해주는 내용이다.

글 | 김민지(송산도서관 사서)

사서의 인터뷰

우리의 수돗물은 안전한가?



코로나19와 인천 지역의 수돗물 유충발생 사태로 인하여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의 기본 요건이다. 화성시 전역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는 화성시 맑은물 사업소와 수돗물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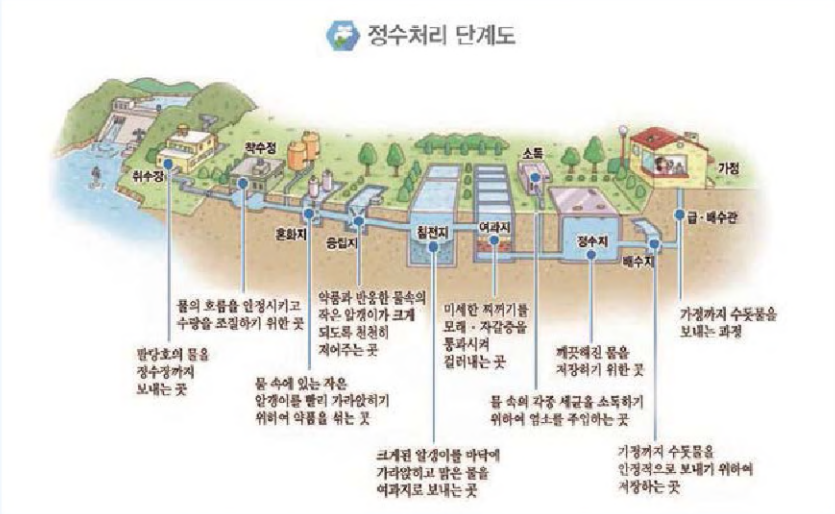
다음은 담당자와 서면으로 인터뷰한 내용이다.

Q1 맑은물사업소는 어떤곳인가요?

화성시 맑은물사업소는 화성 시민들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과 14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사업소는 배수지 23개소, 가압장 99개소에서 맑고 풍족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날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Q2 화성시 수돗물의 공급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화성시 수돗물은 팔당호에서 물을 취수하여 성남정수장, 수지정수장에서 정수 처리 과정을 거친 다음 화성시 23개 배수지를 통하여 각 가정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각 단계별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수처리단계도사진 | 출처 -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홈페이지

Q3 화성시 수돗물의 안정성은 어떻게 되나요?

수돗물은 염소소독을 하여 세균이 살 수 없는 안전한 상태이며 수질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화성시에서는 인천 지역에서 발견된 깔따구 유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나방파리는 수돗물의 잔류 염소로 인하여 살 수 없으며 배수구, 하수구 등 주로 습한 곳에서 서식하는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예방 또는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대처법

- **살충제 사용** : 나방파리가 자주 나오는 배수구나 하수구에 살충제를 뿌려줍니다.
- **끓는 물 사용** : 배수구나 하수구에 정기적으로 끓는 물을 부어줍니다.
- **베이킹 소다 사용** : 배수구나 하수구에 베이킹 소다를 부어줍니다.
-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 : 싱크대, 화장실 등 습한 곳을 청소하여 청결하게 유지합니다.

함께 읽어보면 좋은 책

우리가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물'이 순환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다양한 장소를 거쳐 우리가 살고 있는 집으로 오는 과정을 상세하고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돌고 도는 소중한 물
카린 아렐 지음, 샤를 뒤테르트르 그림 | 푸른숲

수돗물은 어디서 왔을까
바즈켄 앙드레아시앙 지음 | 다산기획





글 | 이재훈(진안도서관 사서)

도서관 사서의 북컬렉션

두빛나래어린이도서관 이혜인 사서의 북컬렉션



1일 1페이지, 세상에서 가장 짧은 교양 수업 365: 인물 편



지적인 현대인을 위한 지식 편의점



퇴근길 인문학 수업: 관계

활자로 알아가기

영상으로 모든 것을 요약해 보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때론 활자로 알아가고 싶은 지식이 있다. 짧은 주제로, 어쩌다 한번, 조금씩 읽으며 지식과 이야기를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을 때 필요한 책이다. 쉽고 간략하며 쓸모있는 지식들이 바로 내 것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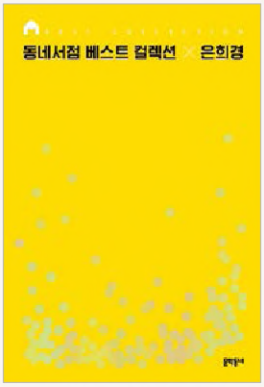
남양도서관 유정미 사서의 북컬렉션



동네책방 생존탐구



퇴근 후, 동네 책방



동네서점 베스트 컬렉션

새로운 문화를 생산해내는 개성 있는 동네 책방

대형 인터넷서점과 전자책으로 우리 주변에 하나 둘 사라지기 시작한 동네 책방! 대형 서점과 달리 동네 책방은 각각 테마를 큐레이션하고, 단순히 책을 읽기만 하는 공간이 아닌 차를 마시며 소통하는 공간으로,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고, 출판물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복합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송산도서관 김민지 사서의 북컬렉션



그거 봤어?



유튜브로 책 권하는 법



콘텐츠가 전부다

지금은 콘텐츠의 시대

유튜브, 넷플릭스 등 영상 콘텐츠가 보편화된 시대가 되었다. 이제 식상한 콘텐츠는 경쟁에 밀려 도태되고 나만의, 나만이 할 수 있는 콘텐츠가 더 중요해 졌다. 콘텐츠로 성공한 사람들과 미디어 전문가들이 말하는 콘텐츠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자.

동탄목동이음터도서관 김준형 사서의 북컬렉션



어둠의 눈



좋은 균, 나쁜 균, 이상한 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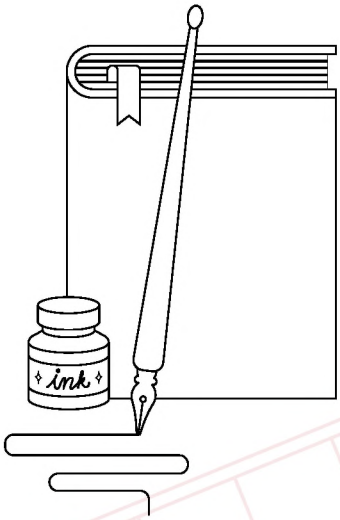
끝없이 진화하는 무서운 전염병

전염병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필자가 제6회 독서감상문공모전을 통해 이 책들을 추천했을 때가 2020년 4월이었다. 당시에는 내심 '올 하반기쯤이면 코로나19가 잠잠해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코로나19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책을 통해서 독자 여러분께 전염병을 대하는 인간 군상, 균(菌)의 이해, 대처법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절대! 제6회 독서감상문공모전에 이 책들이 선정되지 않아서 다시 추천하는 것은 아니다(^^;).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다!

“1인 1책 쓰기”



화성시 시민작가 양성 프로젝트!

지역 작가와 함께하는 비대면 원고 멘토링 서비스를 통해

나만의 개성을 가득 담은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내 책’을 출판해드립니다.

“1인 1책 쓰기” 사업은 화성시 도서관에서 처음으로 시도해보는 비대면 도서 출판 프로그램이다.
‘단편 동화’, ‘에세이(수필)’, ‘자서전’ 3개 분야의 수강생을 모집하여, 9월 2일(수)부터 11월 11일(수)까지 진행되는 이 사업은 지역 작가와 함께하는 ‘비대면 원고 멘토링 서비스(6회)’와 ‘책 쓰기와 관련한 온라인 특강(전체 강의 2회, 분야별 강의 각 3회)’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만의 책 출판 이후에는 작은 ‘출판 기념 간담회’가 계획되어 있다.

비대면 원고 멘토링은 지역 작가가 참가자에게 이메일을 통해 출판 기획 · 글쓰기 · 원고 교열 등 출판 전 과정에 걸친 멘토링 및 코칭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한 작가당 세 명의 참가자가 매칭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 작가는 12인으로 △ 단편 동화 부문에 김명철, 이유, 이현호, 휘민 △ 에세이 부문에 권지영, 김효숙, 최성규, 황금모 △ 자서전 부문에 공화순, 김명은, 류순자, 윤순희 작가가 활동한다.

거의 모든 과정이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그간 책을 써보고 싶었지만 글 한 줄 적을 자신이 없었던 모든 이들을 위한 것이다. 나의, 나에 의한, 나를 위한! 나만의 개성 가득한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내 책’을 출판해 볼 수 있다. 상세한 내용은 온라인 통합플랫폼(www.ehslib.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글 | 최지연(도서관독서문화진흥팀 사서)

도서관, 코로나19를 기록하다

지금 우리는 지금 코로나19가 만연한 시대에 살고 있다.
백신이 개발된다면 코로나19 시대는 종식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앞으로 또 어떤 재난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도서관에서는 우리의 경험을 기록하고
보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코로나19를 슬기롭게 이겨내는 시민의 감정을
타일벽화아트와 단어사전편찬을 통해 아카이브(기록)하려고 한다.





archive

타일벽화아트

코로나19에 대한 화성시민들의 감정을 담은 그림이나 글귀를 수집하여 타일에 옮겨 보존하고 벽화로 만들어 기록한다. 언택트 시대에 발맞추어 시민들의 작품은 온라인으로 모집하여 진행한다. 작품 모집이 완료되면 타일에 옮겨 담아 협성대학교 생활공간디자인학과 학생들과 협력하여 타일벽화를 디자인하고 시공한다. 타일벽화아트는 8월 18일(화)부터 참여자를 모집하여 11월 태안도서관 외부에 벽화로 조성한다.

단어사전편찬

코로나19에 대한 화성시민들의 감정을 표현한 단어를 수집하여 단어 사전으로 만들어 기록하고 보존한다. 먼저 감정단어를 수집하고, 그 단어에 대해 화성시민들이 생각하는 개인적인 의미를 모집한다. 이렇게 모집된 시민들의 단어를 수원대학교 국문학과 학생들과 함께 단어 사전을 편찬한다. 사전적이고 학술적인 의미가 담긴 국어단어사전이 아닌, 화성시민들의 생각과 감정이 담긴 화성시민의 감정 단어 사전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완성된 단어사전은 온라인 통합플랫폼(www.ehslib.or.kr)에 웹진 형태로 게시될 예정이다. 참여자 모집은 8월 24일(월)부터 9월 14일(월) 까지이다.

글 | 윤한나(도서관독서문화진흥팀 사서)

함께 만들어가는 도서관 '풍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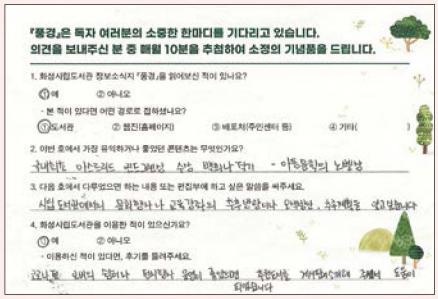
'풍경'은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좀 더 나은 '풍경'을 위해 좋았던 기사 또는
여러분의 제안과 의견을 엽서에 담아 보내주
세요. 의견을 보내주신 분 중 매월 10분을
추첨하여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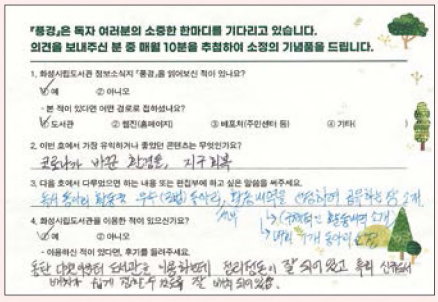
42호 독자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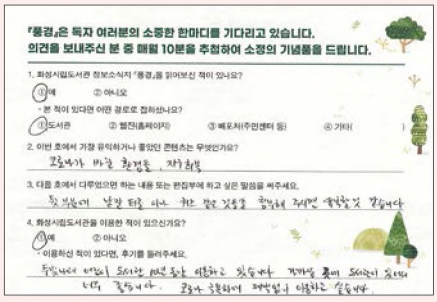
Q 이번 호에서 가장 유익하거나 좋았던 콘텐츠는 무엇인가요?

- 국내 최초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상 수상 백희나 작가 – 아동문학의 노벨상
- 코로나가 바꾼 환경들, 지구회복









Q 다음 호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 또는 편집부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 시립도서관의 문화행사나 교육 강좌의 추후 방향과 계획을 알고 싶습니다.
- 독서 동아리 중 우수(모범)동아리 활동내역을 선정하여 공유해 주세요.
- 낱말 퍼즐이나 퀴즈 같은 것들을 첨부해주시면 유익할 것 같습니다.

Q 화성시립도서관 이용 후기를 들려주세요.

- 두빛나래어린이도서관을 10년동안 이용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도서관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코로나 극복하여 제약없이 이용하고 싶습니다.
- 코로나 전 로비의 쉼터나 전시 행사 운영, 추천도서 소개가 도움이 되었습니다.
- 동탄다원이음터도서관을 이용하는데 정리 정돈이 잘 되어 있고 특히 신규 도서 배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알면 편한 도서관 서비스

1 희망도서신청
사업내용 월 2회 이용자 희망도서 구입 및 신청자 우선 대출 서비스
1인당 3권(도서관통합), 권당 50,000원 이하 가능
운영대상 화성시립도서관 관외대출회원
운영방법 홈페이지 및 리브로피아에서 신청

2 상호대차 서비스
사업내용 화성시 관내 소장도서를 신청, 가까운 도서관에서 대출
이용권수 1인당 3권
운영대상 화성시립도서관 관외대출회원
신청방법 홈페이지 및 리브로피아에서 신청

3 책바다(전국공공도서관단위)
사업내용 타지역 공공도서관의 자료 상호대차 서비스
(택배비 이용자부담)
대출권수 및 대출기간 1인당 3권 14일(배송기간 미포함)
자료범위 전국공공도서관의 관외대출이 가능한 자료
이용방법 '책바다' 홈페이지(http://www.nl.go.kr) 회원가입 및 직접 신청
책바다 신청 → 대출 가능 여부 통보 → 택배비 결제 → 대출(지역공공도서관 방문대출) → 반납(지역공공도서관 방문 반납)

4 책나래(전국공공도서관단위)
사업내용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 대상 무료 책배달 서비스
운영대상 등록장애인
이용방법 거주지역 도서관 회원가입 후 책나래 홈페이지
(http://cn.nl.go.kr)회원가입 및 승인절차 후 이용가능

5 책이음(전국공공도서관단위)
사업내용 책이음(통합도서) 서비스에 가입된 전국 공공도서관을 화성시 공공도서관 회원이 별도 추가 가입 없이 바로 이용 가능한 서비스
운영대상 화성시공공도서관 회원 누구나
이용방법 처음 이용시 안내데스크에서 인증 절차 후 이용 가능
책이음 홈페이지 http://book.nl.go.kr

6 두루두루(경기도공공도서관단위)
사업내용 도서관방문이 어려운 장애인대상 무료 책배달 서비스
운영대상 화성시 거주 장애인(등록증 및 복지카드 등 확인)
이용방법 가까운 도서관에서 회원가입 → 두루두루 서비스 회원 가입 신청 → 담당자 승인 및 이용 가능
경기도 사이버 도서관 홈페이지 http://www.library.kr

7 내생애첫도서관(경기도공공도서관단위)
사업내용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임산부와 영유아대상 무료 책배달 서비스
운영대상 임산부와 영유아(12개월 미만)
이용방법 가까운 도서관에서 회원 가입 → 내생애첫도서관 회원 가입 신청 → 담당자 승인 및 이용가능
경기도 사이버 도서관 홈페이지 http://www.library.kr

8 전자도서관
사업내용 PC,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전자자료 이용(e-book, 오디오북)
운영대상 화성시립도서관 회원가입자
대출권수 및 대출기간
- 구독형 전자책 : 한 달간 10권
- 소장형 전자책 : 14일 5권
- 오디오북 : 권당 5일

이용절차
- PC : 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 → 전자자료
- 스마트폰 모바일기기 : 리브로피아 & **교보문고 전자도서관(e-book)** or 오디언도서관(오디오북) → 도서관 검색 및 설정 → 로그인 후 전자책 대출

9 학술논문원문서비스(DBpia)
사업내용 홈페이지를 통한 학술논문원문 무료 열람
운영대상 화성시립도서관 회원가입자
이용방법 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 → 전자자료 → 학술논문원문 바로가기

10 모바일 앱 서비스
사업내용 도서관서비스 어플리케이션 '리브로피아'를 통한 모바일 회원증 이용, 도서검색 및 대출내역 확인, 전자자료 이용 등 각종 서비스
운영대상 화성시립도서관 회원가입자
이용방법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에서 '리브로피아'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 가입 및 확인 절차 후 이용 가능



도서관 이용안내

휴관일 안내

구 분	매월 첫 번째 월요일 휴관도서관	매월 두 번째 월요일 휴관도서관
정기휴관	동탄중앙이음터도서관, 병점도서관, 정남도서관, 봉담도서관, 송산도서관, 둥지나래어린이도서관, 동탄목동이음터도서관	동탄복합문화센터도서관, 태안도서관, 진안도서관, 남양도서관, 삼괴도서관, 두빛나래어린이도서관, 동탄다원이음터도서관, 송린이음터도서관
공통휴관	법정공휴일, 창립기념일 / 장서점검 등 특별한 사유로 관장이 정하는 날	

회원가입 안내

구 분	내 용
대 상	•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 • 경기도 소재 재직자 및 재학생
구비서류	•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발행 3개월 내) • 재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발행 1개월 내)
신청방법	• 화성시립도서관 홈페이지 회원가입(휴대폰 인증 또는 민간 I-PIN 인증을 통한 본인확인 후 가입 가능) –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보호자)의 본인확인과 동의 후 가입 가능 – 가까운 화성시립도서관을 방문(구비서류 지참)하여 회원카드 발급

이용시간 안내

구 분	평 일	주 말
종합자료실	09:00 ~ 22:00	09:00 ~ 18:00
어린이자료실 · 전자정보실	09:00 ~ 18:00	
어린이도서관		
열람실	07:00 ~ 24:00	

도서대출 안내

구 분	내 용
대출	• 1인 7권 14일
연장	• 홈페이지 및 리브로피아에서 1회 가능
연체규정	• 연체일수만큼 대출 정지 • 90일 초과 장기연체 시 반납일로부터 6개월 대출정지
도서분실	• 동일도서로 구입 후 반납 • 분실도서의 품절 및 절판 시 지정도서로 대체 변상
타관반납	• 가까운 도서관에서 타관 반납 가능

※ 지금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화성시 도서관 전체 휴관중이며, 휴관 기간 중 도서 예약 대출 서비스인 '북테이크아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ISSN 2714-0571